

# publishing news & news

## 2005 출판·잡지·인쇄·서점인

### 신년교례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업계 모두의 뜻을 모아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2005 출판·잡지·인쇄·서점인 신년교례회'가 1월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를 비롯한 출판계 대표단체인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심),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처음 개최한 2005 신년교례회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고흥길 국회문화관광위원, 김우창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조직위원회 위원장, 나춘호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회장, 각 관련기관·단체장 및 원로, 회원사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하여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정일 출판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련단체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총체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나아가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한국출판의 세계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이며, 안으로는 번역출판사업, 초록사업, 독서진흥 방안, 세계지원 방안, 선정도서 예산 증액 등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문화산업 및 지식산업의 핵심인 출판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며 "정책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주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출판 관련 단체 역시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법 전문개정제에 대한

### 의견서 제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저작권법 전문개정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저작권 개정제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의 저작권 개정 의견서 수렴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출협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공동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크게 ▶ 복제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부터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 저작권법 27조상에서의 공중용 복사기의 정확한 의미정리(공중의 의미를 '불특정인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정의)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저작물 이용유통의 원활화·활성화에 큰 이점 제공 및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 저작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보상금 사용을 위해 공탁법을 배제한 특별법 형태의 입법 필요 ▶ 출판물의 무단복사로부터 출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판면권 도입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한 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에 따른 공공대출권의 도입이다.

## 해외동포 사랑의 책보내기 사업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2004 해외동포 사랑의 책보내기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해외 동포들에게 모국의 책을 통하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워주고, 우리 역사·문화·언어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조국과의 이질감 해소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펼쳐지는 책보내기 사업은 2004년에 98사의 도서 327종 1만1,770부를 구입하여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인도 등 총 9개국 23개처에 지원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브스키에, 12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태국, 캄보디아 등에 전달단을 파견, 도서기증 및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여학과 백과사전의 중점 지원, 사전에 전달처에 필요한 도서 파악 등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 2004년도 저작권 세미나

### 디지털 시대와 저작자 보호

2004년도 저작권 세미나가 지난해 12월 20일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열렸다.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와 저작자 보호'라는 주제로 아래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적 공유의 제재와 저작자와 이용자 간 합리적 관계 형성을 위한 현실을 진단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삼호 부교수는 '저작자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제한과 침해, 저작권법의 역할을 살피며 "저작권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창작 소비자들과 저작자들은 불만족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디지털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후 일부를 삭제·수정하는 '동일성유지권' 분쟁의 심각성과 인터넷으로 인해 등장한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전송권이 잘못된 개념으로 불합리하게 사용됨을 지적했다. 단속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과용 도서의 다량복제, 저작물의 디지털화 또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유'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한계다.

가톨릭대 조교수 홍봉주 변호사는 '사적복제보상금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적복제와 저작권제도의 의미, 사적복제보상의 근거와 보상금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위해서는 납부의무자를 제조업자측으로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사적복제보상금의 목적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확보인 만큼 보상금 전액을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하대 박익환 교수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호홍 책임연구원도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환경과 시대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어야 저작권에 대한 안정적인 법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출판관계자뿐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출판과 음악, 영화 등 모든 산업에서의 저작자 보호는 저작권의 강화와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와 수교확대가 뒷받침돼야 함을 명시하며 저작자와 저작물에 관한 관리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 한국출판학회

#### 제16회 정기 학술대회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종국)가 오는 2월 16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16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한국출판의 현실 진단과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출판 산업의 위기적 상황과 그 탈출' (노병성·협성대 교수), 'e-book의 콘텐츠 개발 패러다임' (김두식·혜전대 교수), 'e-book을 넘어 u-book에의 지향' (이기성·계원대 교수)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02) 712-9169

### 과학기술부

#### 과학문화사업 계획서 접수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과학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문화단체, 교육단체, 학술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학 문화시설, 기업 등의 과학문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 제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일상생활 속에서의 과학기술 실천, 과학기술계와 타분야와의 교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과학문화 행사나 신규 과학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경우는 3,000만 원까지, 과학도서 출판 분야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과학문화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18일까지이다.

www.grants.scienceall.com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심)에서 이달의 읽을 만한 책(1월분)을 선정, 발표했다. 문학, 역사, 철학 등 10개 분야의 도서 10종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파이 이야기(안 마텔 지음·공경희 옮김, 작가정신, 값10,000원)
- ▶ 온달, 바보가 된 고구려 귀족(이기담 지음, 푸른역사, 값11,900원)
- ▶ 니체, 그의 삶과 철학(레지날드 J. 홀링데일 지음·김기복 외 옮김, 이재이북스, 값24,000원)
- ▶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로버트 달 지음·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값15,000원)
- ▶ 존경받는 부자들(이미숙 지음, 김영사, 값13,900원)
- ▶ 세계화와 문화(존 톰린슨 지음·김승현 외 옮김, 나남출판, 값14,000원)
- ▶ 디지털 제대로 이해하기(이구형 지음, 지성사, 값9,000원)
- ▶ 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이석우 지음, 아트북스, 값23,000원)
- ▶ 한국인을 위한 교양 사전(강준만 지음, 인물과사

상사, 값23,000원)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김중미 외 지음, 창비, 값7,000원)

### 한국일보사

#### 제45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선정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두산이 후원하는 제45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5개 부문 수상작이 발표됐다.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은 한국일보사가 출판문화의 진흥을 위해 1960년에 제정한 상으로 올해는 927종, 1,362권이 접수되었으며, 응모 부문별로는 학술저작이 240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어린이·청소년 233종, 번역 190종, 편집 145종, 교양저작 119종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저술부문** ▶ 학술-《한국의 전통생태학》(이도원 지음, 사이언스북스) ▶ 교양-《헌법의 풍경》(김두식 지음, 교양인) **번역부문** ▶ 《빈서편》(스티븐 핑거 지음·김한영 옮김, 사이언스북스) **편집부문** ▶ 《한국생활사박물관》(전12권,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지음, 사계절) **어린이·청소년부문** ▶ 《엄마 마중》(이태준 글·김동성 그림, 소년한길)·《한국사 편지》(전5권, 박은봉 지음, 웅진닷컴)

### 한국전자출판협회

#### 이달의 우수전자책 선정작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는 최근 이달의 우수 전자책(11월, 12월)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11월 : 신화로 만나는 세계시리즈(3종)(여름언덕), 금발머리와 곰 세 마리(웅진닷컴) ▶ 12월 : 응가하자, 끄끄(보림출판사), 대한민국캐릭터편람((주)조은커뮤니티)

### 〈창작과비평〉

#### 창간 40주년 장편소설 공모

1966년 1월 창간한 이래 한국문학의 발전을 이끌어 온 〈창작과비평〉이 창간 40주년을 맞아 장편소설을 공모한다. 미등단 예비작가는 물론 기성작가도 대상으로 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0매 내외이다. 당선작 1편에는 5,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원고마감은 11월 30일이다.

문의전화 (031) 955-3367

### 〈푸른작가〉

#### 청소년 문학상 응모작 모집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문학동네가 펴내는 청소년 문예지〈푸른작가〉가 청소년 문학상 응모작을 모집한다. 응모부문은 중등부의 경우 시 3편 이상, 산문 1편 이상이며 고등부는 시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이상이다. 주제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원고마감은 2월 28일이다.

문의전화 (02) 313-1486, www.minjak.or.kr